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올가을 미성년자 음주 행위를 엄중히 단속한다고 발표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 및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뉴욕주 전 지역의 대학가에서 미성년자 음주 행위 단속 공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가을 학기 시작과 함께 주정부 단속기관들이 공동으로 대학 캠퍼스와 대학가에서 미성년자 음주 행위를 엄중 단속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의 법 집행 기관들과 공조하는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및 뉴욕주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주류판매 허가증을 소유한 바, 레스토랑, 주류 판매점, 식료품점 등에서 위조 신분증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주류판매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음주 행위는 평생 후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나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정부는 젊은 뉴욕 주민들이 주류를 구입한 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욕주 전 지역 집행 기관의 일체 단속은 미성년자의 음주 행위와 너무 자주 발생하지만 피할 수 있는 비극을 막기 위한 우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이번 협동 단속은 대학교 학생들이 가을학기를 위하여 캠퍼스로 돌아오는 즉시 시작할 것입니다. 법 집행 기관의 강화된 일체 단속은 (1) 미성년자 음주를 예방하고, (2) 위조 신분증의 구매 및 사용을 방지하며, (3)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및 교통부(DMV)가 연중 실시하는 일상적인 미성년자 단속 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주지사의 성공적인 안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알코올 구매 의도로 가짜 신분증 혹은 위조문서를 사용할 경우 체포하고 그들의 운전 면허증을 최소 9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정지시켰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로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에 적발된 사업체는 위반 시마다 최대 10,000 달러의 민사 처벌을 받게 되며, 재범자들은 또한 주류 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의 Vincent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주정부 기관들은 미성년자 음주 행위와 위조 신분증 사용을 엄중히 단속하기 위해 자원을 공유하며 해당 지역 법 집행 기관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 허가 소지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모든 사람의 신분증을 간단하고 쉬운 절차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도록 확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동차부(DMV)의 집행 부커미셔너인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의 Terri Egan 위원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술의 도움으로 우리 수사관들은 가장 정교한 위조 신분증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의 학기 시작을 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성년자 학생들의 주류 남용을 막아서 자신의 생명과 다른 이의 생명을 위협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미성년자 음주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주지사의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주류관리청(SLA) 및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OASAS)의 Arlene González-Sánch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주류 또는 마약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 그들 주변의 지원 시스템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미성년자 음주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기 위한 Cuomo 주지사님의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을 미성년자 음주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막으며, 해당 젊은이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단체 및 개인의 활동과 결부됩니다.”

5월 9일 Cuomo 주지사는 2018년 4월에 실시된 미성년자 음주 행위 일제 단속 기간 동안,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200 개 사업체를 고발했으며, 자동차부(DMV)는 주류를 구입하기 위해 허위 신분증을 사용한 21 세 미만의 사람을 48 명 체포했습니다.

지난 8월 3일에 Cuomo 주지사는 미성년자 음주 행위와 위조 신분증 사용을 엄중히 단속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새로운 자동차부(DMV) 시범 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소재 회사 인텔리체크 주식회사(Intellicheck Inc.)에서 개발한 이 새로운 기술로 법 집행기관은 인텔리체크(Intellicheck)의 “법적인 신분증(Law ID)” 앱을 수사관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여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스캔하고 50개 주 모든 곳의 운전 기록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몇 초 내에 수사관은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은 이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시험하는 주입니다. 이번 달 말에 추가로 투입되는 자동차부(DMV)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올가을에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레스토랑 및 선술집 협회(Empire State Restaurant and Tavern Association)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일련의 무료 규정 준수 교육을 다시 주최할 예정입니다. 바, 레스토랑, 선술집 소유주 및

직원들을 상대로 3일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주류 판매에 관한 법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를 예방하는 법을 포함하여 주류 판매 허가증 소지자와 직원들이 법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전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음주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 알코올 관련 부상으로 인한 대학생 사망자 수: 1,800명 이상.
- 술에 취한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한 대학생 수: 696,000명.
- 알코올과 관련된 성폭행을 경험한 대학생 수: 97,000명.

이밖에 [NYS OASAS](#) 보고서:

- 21세 이전의 음주는 두뇌 발달을 방해하고, 20대 초반에 잠재적인 학습 장애의 원인을 초래함.
- 소년기 음주는 낮은 성적, 잦은 결석, 높은 학교 중퇴율과 이어짐.

약물 중독으로 고생하는 뉴욕 주민 혹은 약물 중독으로 고생하는 친족이 계신 경우,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뉴욕주의 무료 상담 전화 HOPEline에 1-877-8-HOPENY (1-877-846-7369)로 전화하거나 HOPENY(단축코드 467369)로 문자를 보내서 도움을 받고 희망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